

제17호



북토크 톡!톡!톡!

발행일 : 2016.04.15

발행인 : 북토크톡

♣ 17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 1~4면 교과관련도서목록 : 3,4학년 1학기 과학
- 5~6면 동화책 서평 : 우산 도서관, 무지개아줌마
- 7면 우리고전 소개 : 한중록
- 8면 외국고전 소개 :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3, 4학년 1학기 과학 관련도서 -

책정보	관련 단원
 <p>교원 ALLSTORY 눈으로 보는 실험 과학</p>	<p>눈으로 보는 실험 과학 /교원 ALL STORY</p>
 <p>초등 선생님도 놀라 과학 뒤집기 /성우주니어</p>	<p>03 척척 붙는 자석과자기장 22 울퉁불퉁 지표의 변화 06 으랏차차 무게와 힘 24 흔들흔들 화산과 지진 12 쓱쓱 골라내는 혼합물</p>
 <p>두근두근 원리과학 /한국차일드아카데미</p>	<p>7 물질 21 땅에 사는 동물 24 흙과 모래 심화편 29 땅의 변화</p>
 <p>스토리 사이언스북 /한솔</p>	<p>06 식물 04 화산과 지진 29 땅과 변화 02 혼합물 12 혼합물의 분리</p>
 <p>호기심 개념 원리과학 /글뿌리</p>	<p>41 고체일까 액체일까? 34 자석은 마술 같아요 47 불이타는 흙은 내 오랜 친구야 44 엉뚱이는 혼합물 박사</p>
 <p>호기심 개념 원리과학 /글뿌리</p>	<p>4 당겨당겨 밀어밀어 자석 9 물질의 성질 10 온도에 따라 변해 21 알일까 새끼일까 동물의 번식 37 땅의 모습</p>
 <p>호기심 개념 원리과학 /글뿌리</p>	<p>33. 자석 23 지층과 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p>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3,4학년 1학기 과학 관련도서-

책 정보		관련 단원
	초등 물리 화학 생생교과서 (정창훈/스콜라/2009)	3학년 1학기 1단원 물체, 물질, 물질의 상태
	별난과학 물질 이야기 (로지 맥코믹/그린북/2014)	3학년 1학기 1단원 물체, 물질, 물질의 상태
	교과서가 쉬워지는 용어 과학 3. 물질 (투비교육연구회/아이세움/2015)	3학년 1학기 1단원 물체, 물질, 물질의 상태
	신비한 자석의 세계 (대한과학진흥회/스완미디어/2015)	3학년 1학기 2단원 자석의 이용
	나침반 (올리비에 소즈로/길벗어린이/2005)	3학년 1학기 2단원 자석의 이용
	밀고 당기는 자석 (정완상/이치사이언스/2013)	3학년 1학기 2단원 자석의 이용
	힘의 백과사전 (오이 기쿠오 외/미세기/2015)	3학년 1학기 2단원 자석의 이용
	애벌레는 왜 그렇게 많이 먹나요? (베린다 웨버/다섯수레/2011)	3학년 1학기 3단원 동물의 한살이
	우리 집에 온 거꾸로 여덟팔 나비 (김정환/사파리/2014)	3학년 1학기 3단원 동물의 한살이
	애벌레가 들려주는 나비 이야기 (노정임/철수와영희/2011)	3학년 1학기 3단원 동물의 한살이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3,4학년 1학기 과학 관련도서-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	
	이알 저알 신기한 알 (돈 쿠식/현암사/2012)	3학년 1학기 3단원 동물의 한살이	
	세밀화로 보는 호랑나비 한 살이 (권혁도/길벗어린이/2006)	3학년 1학기 3단원 동물의 한살이	
	궁금한 개념과학 동화 12. 알을 낳는 동물 (한국헤르만헤세/2014<전집>)	3학년 1학기 3단원 동물의 한살이	
	배추 흰나비 알 100개는 어디로 갔을까? (권혁도/길벗어린이/2015)	3학년 1학기 3단원 동물의 한살이	
	관찰하고 탐구하고 1. 동물의 한 살이 (프랑수아즈 드 기베르/내인생의책/2014)	3학년 1학기 3단원 동물의 한살이	
	지구의 주인 흙 (폴레 부르주아/주니어김영사/2010)	3학년 1학기 4단원 지표의 변화	
	맛있는 과학 /주니어김영사	14 혼합물 34 지진과 화산 37 지각과 암석	4학년 1학기 3단원 화산과 지진
	손에 잡히는 과학 교과서 /길벗스쿨	9 힘 6 식물 16 화산과 지진 11 여러 가지물질	4학년 1학기 1단원 무게재기 2단원 식물의 한살이 3단원 화산과 지진 4단원 혼합물의 분리
	한솔 어린이 과학 /한솔교육	06 뭐가 더 무거울까 11 섞어보면 재미있어	4학년 1학기 1단원 무게재기 4단원 혼합물의 분리
	반짝반짝 까칠까칠 소금을 조심해 (박은호/아이세움/2015)		4학년 1학기 4단원 혼합물의 분리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3,4학년 1학기 과학 관련도서-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
	<p>고추/ 쌀 / 콩 (정혜경 외 한술수북/2014)</p>	<p>4학년 1학기 2단원 식물의 한살이</p>
	<p>파브르에게 배우는 식물 이야기 (노정임/철수와영희/2014)</p>	<p>4학년 1학기 2단원 식물의 한살이</p>
	<p>식물, 어디까지 아니? (박연/고래가숨쉬는도서관/2013)</p>	<p>4학년 1학기 2단원 식물의 한살이</p>
	<p>이상한 식물 나라의 앨리스 (최주영/꿈꾸는달팽이/2013)</p>	<p>4학년 1학기 2단원 식물의 한살이</p>
	<p>식물은 마술사 (장수하늘소/해솔/2015)</p>	<p>4학년 1학기 2단원 식물의 한살이</p>
	<p>내가 키운 채소는 맛있어! (김바다/한림출판사/2012)</p>	<p>4학년 1학기 2단원 식물의 한살이</p>
	<p>재미있는 화산과 지진 이야기 (이충환/가나출판사/2014)</p>	<p>4학년 1학기 3단원 화산과 지진</p>
	<p>부글부글 땅속의 비밀 화산과 지진 (함석진/웅진주니어/2010)</p>	<p>4학년 1학기 3단원 화산과 지진</p>
	<p>암석과 광물 (편집부/예림당/2013)</p>	<p>4학년 1학기 3단원 화산과 지진</p>
	<p>화산원정대 (파올라 카타파노, 시모나 체라토/동아시아언스/2012)</p>	<p>4학년 1학기 3단원 화산과 지진</p>



2011년 푸른 문학상 새로운 작가상을 수상하며 작가의 길로 들어섰고, 2013년 『책 읽는 강아지 몽몽』으로 비룡소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사라진 축구공』, 『방귀 스티커』, 『그림자 길들이기』, 『잔소리 붕어빵』이 있다.

-yes24 발췌-



우산 꽃이 피었습니다

(우산 도서관/최은옥 글/오정림 그림/창비/2015)

송파초등학교 사서교사 김혜영

일기예보도 없이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거나 책가방을 우산삼아 빗속을 뛰어가다가 훌쩍 옷이 젖은 경험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리라. 비가 갑자기 오던 어느 날, 거리가 멀어서 누군가 우산을 가져다주는 일은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시골학교에서의 작가의 경험이 모티브가 되어 우산도서관으로 출간되었다. 비룡소 문학상, 푸른문학상 수상 작가 최은옥의 첫 고학년 장편 동화로 잔잔하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이야기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다 사고로 의식불명인 채 누워있는 아버지와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집까지 옮기고 엄마까지 일하게 된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한 12살 건울이. 학교생활에도 의욕이 없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모듬활동도 다 귀찮아하며 건성이다.

우연히 우산을 빌려주는 ‘우산도서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친구들의 호응 속에 여러 난관을 뚫고 보람초등학교 5학년 2반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우산도서관을 만들게 되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아빠의 사고이전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이 있던 건울이,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그 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던 건울이는 우산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점점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밝아지고 한층 더 성숙해져 가는데 그 모습이 흐뭇하고 대견스럽다.

얼마 전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우산 나눔 공모”가 안내된 공문을 본 적이 있다. 비 오는 날 어린이들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매년 약 10만개의 투명우산을 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우산도서관이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길지 모른다는 기대감과 함께 우산도서관을 위해 교장실의 일부를 양보하고 고장 난 우산을 손수 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야기 속의 볼록 교장샘 같은 훈훈한 이야기도 이 따뜻한 봄날 봄바람 타고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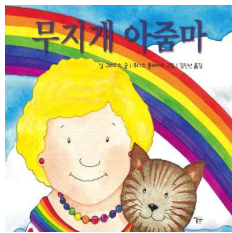
생각나누기

1. 5학년 2반에서 우산 도서관을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안을 받았다면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이유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해 봅시다.

2.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산 도서관의 건울이 아빠는 뺑소니차에 치인 사람을 도와주려다 사고를 당하지요. 또 경남 창원에서는 수십 명이 차를 들어 올려 차에 깔린 여고생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깊숙이(나의 위험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개입되어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자 닐 그리피스(Neil Griffiths)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닐 그리피스는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서 사랑받는 영국의 유명한 동화 작가입니다. 닐의 작품에는 전에 아이들을 교육했던 경험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닐의 작품은 인상적인 스토리와 개성이 강한 등장인물, 아름다운 표현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여행(The Journey)』, 『가려운 곰(Itchy Bear)』, 『만약에(If only)』, 『디딤돌(Stepping stones)』, 『플라밍고 링고(Ringo the Flamingo)』 등이 있습니다. -교보문고 저자소개 인용-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무지개 아줌마/닐 그리피스 지음/김진선 옮김/주디스블레이크 그림/이슈/ 2013년)
서울신림초등학교 인기연

영국의 유명한 동화작가인 닐 그리피스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 그는 이야기가 아이들을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무지개 아줌마』에는 강한 메시지가 느껴진다. 이 책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강조하는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뚜렷하게 보이는 작품으로 그가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점이 더욱 부각되어 보인다.

주인공인 무지개 아줌마는 자신의 집을 무지개 색으로 오색찬란하게 칠하고 밝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분이다. 분위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 그래서인지 아줌마 주변은 언제나 빛나 보인다. 그러나 도시의 다른 곳은 온통 잿빛으로 회색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런 곳에서 아줌마네 집만 눈에 확 띄게 된다. 다른 곳과 통일되지 못한 집이 못마땅한 구청장은 아줌마네 집도 회색으로 칠하라고 명령한다. 그런 명령에 무지개 아줌마는 회색 집에 살게 되고 더불어 표정도 행동도 모두 우울하게 변한다. 동네 활동에도 보이지 않고 변화된 아줌마 모습이 걱정된 이웃들은 고민 끝에 자신들의 집을 예쁜 색으로 칠하게 된다. 그러자 구청장은 다시 무지개 아줌마 집을 다른 집과 똑같이 색을 입히라고 명령하는데.....

『무지개 아줌마』는 남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획일적인 사회의 표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구청의 명령에 순응하는 아줌마나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려는 구청이나 모두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만약 아줌마가 평소 이웃과 소통하지 않고 지냈다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웃들의 행동을 보면 아줌마가 이웃과 잘 지내는 분이구나 싶다. 사실 한 사람의 행동이 모두를 바꾸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아줌마가 모두를 바꾸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책에서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다. 그 중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가 불가능 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 독자여! 평소 이웃과 또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길. 그리고 나 또한 주변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길. 작가는 이것이 공동체 사회이며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책을 읽고 우리 주변에 무지개 아줌마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지, 또 모두 함께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 토론거리를 찾아 이야기 나누기 좋은 책이다.

생각나누기

1. 다른 집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지개아줌마의 집색깔을 이리저리 바꾼 구청장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슬퍼 보이는 무지개 아줌마를 위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집 색을 바꿉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나라고전
- 한중록**

1795년(정조 19)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가 지은 회고록. 모두 4편으로 되어 있다. 제1편은 작자의 회갑해에 쓰여졌고, 나머지 세 편은 1801년(순조 1)~1805(순조 5) 사이에 쓰여졌다. 제1편은 혜경궁의 회갑해(정조 19)에 친정 조카에게 내린 순수한 회고록이다. 나머지 세 편은 순조에게 보일 목적으로 친정의 억울한 죄명을 자세히 파헤친 일종의 해명서이다.

<한중록>은 역사적 인물의 글이라는 점에서, 더욱이 그가 비빈(妃嬪)이라는 사실에서, 정계야화로서 역사의 보조자료가 된다. 또한, 이 작품은 여류문학, 특히 궁중문학이라는 점에서 궁중용어, 궁중풍속 등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한중록 [閑中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발췌

	<p>류혜경 엮음/ 오지은 그림/ 청솔</p>	<p>청솔의 「새롭게 읽는 좋은 우리 고전」 17번째 이야기이다. 한중록 4편 중 순조 임금에게 보이기 위해 쓴 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중록을 실었다. 어린이가 읽기 쉽게 표현하고 속도감이 있어 읽는데 지루하지 않다. 어려운 단어는 뜻을 풀이해 주고 책 말미에 <<한중록>>과 그 배경 임오화변에 대해 설명해 주어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 독서력 평가도 실려 있어 책을 읽고 자신의 독서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점도 흥미롭다.</p>
	<p>이은서 글/ 김도연 그림/ 휴이넴</p>	<p>4부분으로 책을 나누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들어가기에서는 책의 주제를 알려 주고 고전읽기는 한중록의 여러 가지 필사본 중 한중만록을 기본 줄거리로 삼았으며 쉬어가는 각 장의 끝에 이해를 도움만한 배경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고전 파헤치기는 앞에서 제시한 주제에 맞춰 작품을 분석하여 현재와 접목되는 부분을 알려 주고 있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하였다.</p>
	<p>임정진 글/ 권문희 그림/ 한겨레아이들</p>	<p>한겨레 옛이야기 29번째 책으로 혜경궁 홍씨의 시각으로 본 임오화변과 주변의 사건을 담담하게 풀어나간 책이다. 비교적 원본의 내용을 잘 살려 썼으며, 책의 말미, 해설을 통해 혜경궁 홍씨를 바라보는 여러 다양한 시각에 대해 제시해 주고 있어, 객관적인 내용 파악에도 도움을 준다. 등장하는 인물의 표정을 재치 있게 그려낸 권문희의 그림도 눈에 띈다.</p>
	<p>최옥정 글/ 김병하 그림/ 주니어김영사</p>	<p>한국고전문학읽기 25번째 책으로 한중록의 모든 부분을 다 실지는 않고 뒷부분은 생략 책이다.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듯하다. 수록된 내용은 원본에 내용에 많이 충실하려고 하였다. 단지 삽화가 한중록의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주지 못해 아쉽다. 뒤에 한중록 해설이 실려 있어 작품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돕는다.</p>

작가소개

1735년 지금의 서울 평동에서 흥봉한의 딸로 태어났다. 1744년 사도세자와 혼례를 치르고 세자빈에 책봉되었다. 1752년 아들 정조를 낳았으며, 그 뒤로 딸 둘을 더 두었다. 1762년 사도세자가 죽은 뒤 '혜빈'으로 호를 받았다. 1776년 아들 정조가 즉위하면서 궁호가 '혜경'으로 올랐고, 1899년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되자 경의왕후에 추존되었다. 혜경궁 홍씨는 남편 사도세자의 참사를 중심으로 영조 대부터 아들 정조와 손자 순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한 <한중록>을 남겼다.

줄거리

제1편에서 혜경궁은 자신의 출생부터 어릴 때의 추억, 9세 때 세자빈으로 간택된 이야기에서부터 이듬해 입궁하여 이후 50년간의 궁중생활을 회고하고 있다. 나머지 세 편은 순조 1년 5월 29일 동생 홍낙임(洪樂任)이 천주교 신자라는 죄목으로 사사(賜死)당한 뒤에 쓴 글이다. 제2편에서 혜경궁은 슬픔을 억누르고 시누이 화완옹주의 이야기를 서두로 정조가 초년에 어머니와 외가를 미워한 까닭은 이 옹주의 이간책 때문이라고 기록한다. 제3편은 제2편의 이듬해에 쓰여진 것으로 주제 역시 동일하다. 혜경궁은 하늘에 빌던 소극성에서 벗어나 13세의 어린 손자 순조에게 자신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애원한다. 마지막 제4편에서는 사도세자가 당한 참변의 진상을 폭로한다.

생각나누기

1. 영조가 아버지로서 사도세자에게 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늘 묻던 말은 " 밥 먹었느냐?"이다. 엄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아버지에게 아들 사도세자는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또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나요?



외국고전
- 나의
라임오렌지

브라질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바스콘셀로스의 대표적 작품이자, 세계 21개국에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있는 성장소설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다섯 살 소년 '제제'를 통해 사랑의 문제, 인간 비극의 원초적인 조건, 인간과 사물 또는 자연의 교감, 어른과 아이의 우정 등을 잔잔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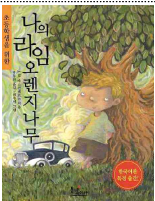
저자는 인생에서 슬픔이란 우리가 이성을 갖게 되고, 인생의 양면성을 발견함으로써 동심의 세계를 떠나는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인생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은 화려함이 아니라 강물에 떠다니는 낙엽과 같이 조출한 것이며 사랑이 없는 인생이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역설하고 있다. 사랑의 결핍이란 결국 어른들의 상상력의 결핍과 감정의 메마름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어린 소년 '제제'를 통해 현실 생활에 의해 황폐해져 가는 인간의 메마른 감정 세계를 동심으로써 구제하기를 호소하고 있다. -yes24 작품소개 발췌-

출판사별

출판사별 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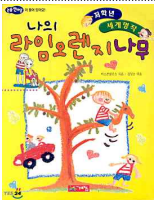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는 현재 동녘출판사 독점계약으로 한 곳에서 밖에 출판되지 않습니다.

이미 절판된 책이라도 도서관에 있으면 읽을 수 있기에 절판된 책 두 권을 소개함을 양해해주세요.



박동원 역/최수연
그림/동녘주니어

원역판으로 고학년부터 읽기에 적합하다. 번역이 자연스럽고 브라질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게 주석을 달아 책을 더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출판사의 책에 비해 인물의 묘사와 그림이 잘 어울린다. 뿌루뚜가와의 우정, 자연과의 교감, 인간 최고의 가치인 사랑 등 깊은 울림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바스콘셀로스
지음/김양순
역음/계림
(절판)

저학년을 대상으로 다시 엮었다. 글씨가 큼직하고 그림이 재미있어 그림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원본의 내용 중 어린이들이 이해하고 재미있을만한 것만 소개하고 있다. 저학년 때 읽고 완본을 한 번 더 읽는다면 추억과 함께 어린이 제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영 역 /
예림당
(절판)

비교적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고학년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편집되어 있으며, 원작의 내용이 빠지지 않고 실려 있다. 눈술시형대비 세계명작이라는 시리즈명에 맞게 책의 뒷부분에 생각해 볼 문제, 눈술문제가 실려 있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작가소개

1920년 2월 26일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의 외곽에 위치한 방구 시에서 태어났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권투 선수, 바나나 농장 인부, 야간 업소 웨이터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작가가 되기 위한 밑거름을 쌓았다. 1942년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고 1962년에 펴낸 '호징나, 나의 쪽배'로 입지를 다졌다. 그에게 가장 큰 성공을 가져다 준 작품은 1968년에 발표한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였다. 이 작품은 브라질 역사상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었다. 그는 1984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교보문고 작가소개 인용-

생각나누기

1. 제제는 라임오렌지 나무,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뿌루뚜 아저씨와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것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또 나이에 상관없이 꼭 비슷한 나이가 아니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친구의 대상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2. 제제에게 라임오렌지나무는 사람이 아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각별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물건이 있나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3. 제제는 사고로 가족과 같은 뿌루뚜 아저씨를 잃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도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가슴 아픈 이별의 경험이 있나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4. 제제는 실수를 하거나 장난을 쳤을 때 아빠와 누나로부터 체벌에 시달립니다. 여러분은 체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북토크톡은 서울초등학교 사서교사 8명의 연구모임입니다

♣책의 표지 그림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다음 호는 6월말에 발간됩니다.